

WEEKLY



startup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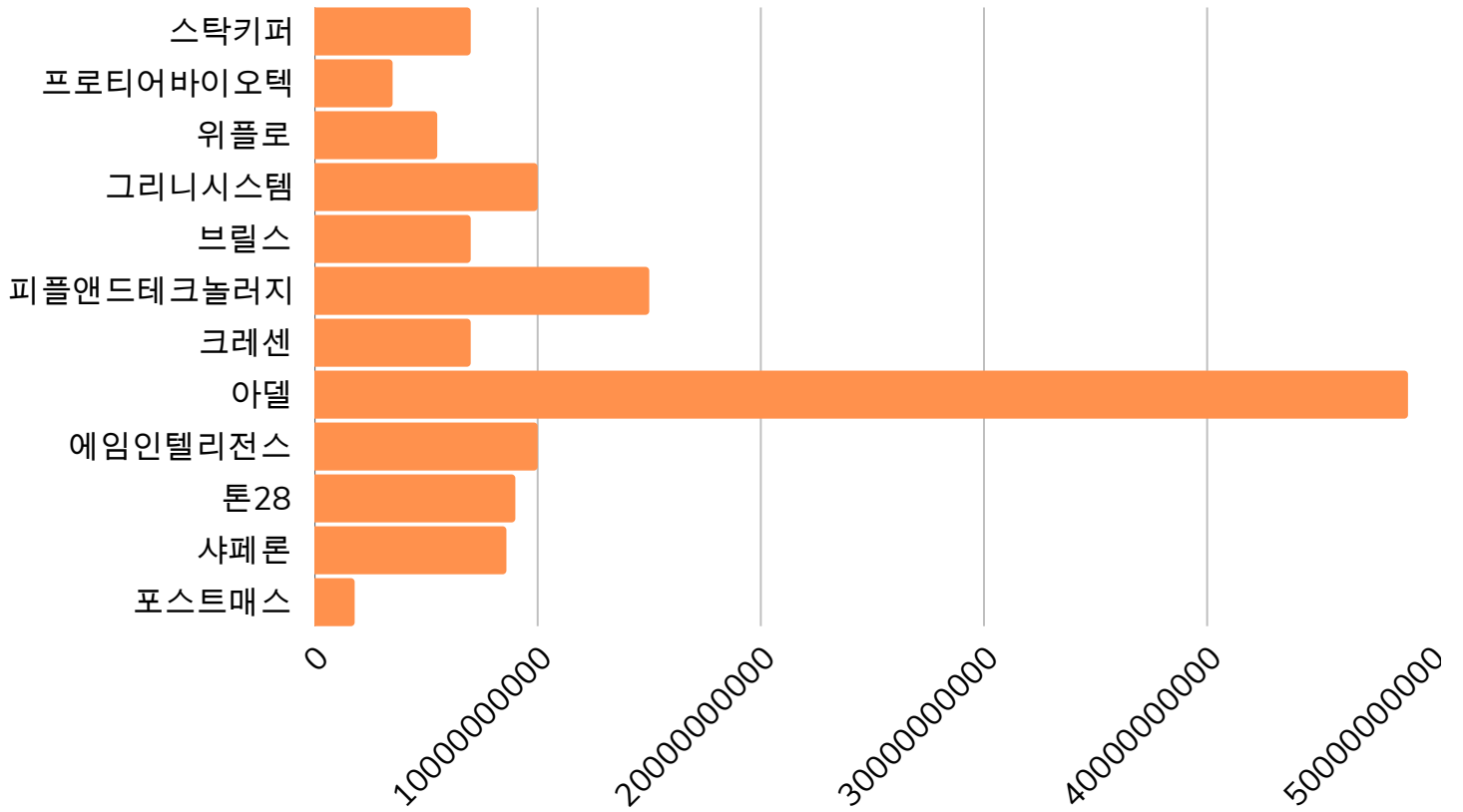
RECIPE FOR STARTUP

STARTUP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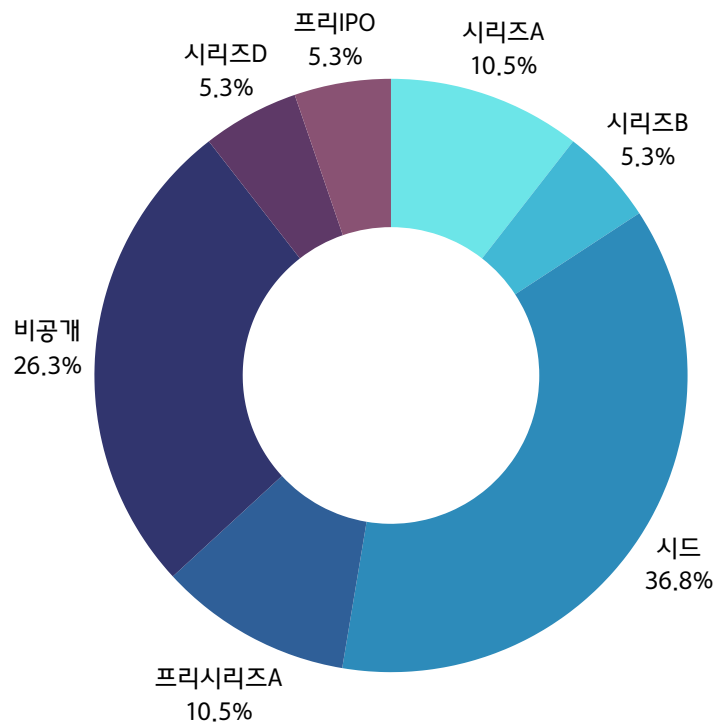
2026년 4월 6-10일 주간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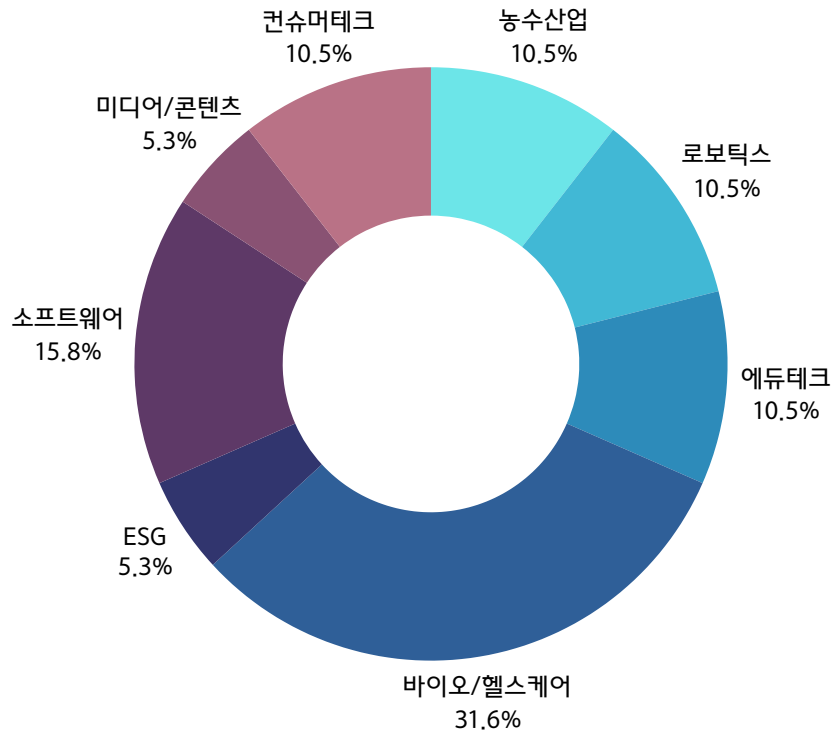
● 투자금



2026년 4월 6~10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19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12개 기업이 1,334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시드가 36.6%로 가장 높았고 프리시리즈A와 시리즈A가 각각 10.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분야별 투자 규모의 경우 올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가 31.6%를 나타냈고 뒤이어 소프트웨어 15.8%, 농수산업과 컨슈머테크, 로보틱스가 각각 10.5%를 기록했다.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이번주 투자액을 주도한 기업은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 기업인 아델이 기록한 490억 프리IPO 투자다. 뒤이어 스마트병원 플랫폼 기업인 피플앤드테크놀러지 150억원 시리즈D 브릿지, 순환경제 솔루션 기업인 그리니시스템이 100억원을 기록했다.

스탁키퍼 : 70억원 시리즈B



한우 실물자산 기반 투자 플랫폼 ‘뱅크우’를 운영하는 스탭키퍼가 7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마쳤다. 이번 라운드에는 산업은행, 롯데벤처스, 인라이트벤처스,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스탭키퍼는 확보한 자금을 가축 투자계약증권 발행 확대, 한우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 은행 연계 오프라인 매장 확장 등에 투입해 투자부터 사육, 가공, 유통, 판매까지 연결되는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다. 뱅크우는 송아지 취득비와 사료비 등에 투자하면 사육 후 경매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현재까지 15개 증권을 발행해 5개 상품을 청산했으며 누적 수익률은 약 17%를 기록했다. 스탭키퍼는 자체 브랜드 ‘솔직한우’ 매장과 육류 가공센터 ‘고기설계소’를 운영하며 B2B 공급망까지 확보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한우 산업을 금융과 소비 경험까지 연결하는 통합 구조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프로티어바이오텍 : 35억원 프리시리즈A



프로티어바이오텍이 최근 진행한 pre-A 라운드에서 35억 원의 투자를 확보하며 신약 개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라운드는 하나벤처스, 한국투자엑셀러레이터, IBK벤처투자, 미래과학기술지주, 티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해 회사의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했다. 프로티어바이오텍은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주목받는 분자접착제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는 항암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분해약물-항체접합체(DAC)와 단독 기전 신약을 병행 개발 중이다. 현재 회사는 다발성골수종을 주요 적응증으로 한 후보물질을 확보했으며, GSPT1 타깃 MGD 'PTB600'과 이를 활용한 DAC 'PTB700'이 국가신약개발사업과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에 각각 선정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번 투자금을 통해 비임상 진입을 가속화하고 난소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도 추진하며 경쟁력 있는 혁신 바이오텍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위플로 : 55억원 시리즈A



AI 기반 진단 솔루션 기업 위플로가 시리즈 A에서 55억원을 확보하며 누적 투자금 118억원을 달성했다. 2022년 한화시스템 사내벤처로 출범한 위플로는 센서 기반 하드웨어와 AI 분석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모빌리티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고장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생산 단계의 품질 검사부터 운용 중 상태 진단까지 적용 가능한 점이 강점이다. 특히 비접촉 방식 자동 점검이 가능한 '버티핏' 시리즈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 국방 및 공공 분야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으며 드론 장비 점검 사업과 방산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 기반도 구축했다. 이번 투자금은 예지 정비 AI 고도화와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니시스템 : 100억원



순환경제 솔루션 기업 그리니시스템이 글로벌 파트너 시멜리아로부터 설비 및 현금성 투자 100억 원을 유치하며 국내 IT 자산 처분(ITAD) 및 ESG 재자원화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했다. 회사는 이 투자를 기반으로 첨단 AI 자동화 해체 설비를 도입하고, 올해 3분기 중 김포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센터용 HDD 및 서버 재자원화 공정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그리니시스템은 독자적인 재활용 방법론을 통해 온실가스 2683톤 감축 성과를 검증받았으며, 국내 ITAD 업계 최초로 한국남부발전에 탄소 크레딧을 양여하는 환경 자산 거래 사례를 구축했다. 더불어 세계 최고 권위의 'R2v3' 인증을 획득해 기기별 탄소 이력 정보를 보증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체계를 완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브릴스 : 70억원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브릴스가 포스코그룹으로부터 7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자금은 포스코홀딩스 전략펀드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펀드를 통해 마련됐으며, 브릴스는 이를 기반으로 로봇 설계·제어 기술과 포스코의 제조 현장 경험을 결합해 차세대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축에 참여한다. 브릴스는 2015년 설립 이후 110여개 특허를 확보하며 국내 대표 SI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현대자동차와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대기업 생산 현장에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해왔다. 특히 로봇 모듈화 플랫폼을 활용한 정밀검사 솔루션으로 2025 로보월드 어워드를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브릴스는 맞춤형 로봇을 통한 제조 현장 안전성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내 코스닥 상장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피플앤드테크놀러지 : 150억원 시리즈D 브릿지



의료 AI-DX 기반 스마트병원 플랫폼 기업 피플앤드테크놀러지가 동아에스티의 전략적 투자(SI)를 포함한 15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라운드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투자에는 원티드랩파트너스, 파인밸류자산운용, 보광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IBK캐피탈 등 주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신규로 합류했으며, 기존 투자사들도 후속 투자를 이어갔다. 특히 동아에스티와의 지분 참여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전략적 동맹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는 실시간환자모니터링 사업을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피플앤드테크놀러지는 지난해 매출 120억 원을 기록하며 70% 성장했고, 올해는 200억 원 달성과 구독형 매출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IPO를 목표로 'K-스마트병원'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전국 85개 의료기관에 솔루션을 공급하며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크레센 : 70억원 시드



전기 수술기 개발 스타트업 크레센이 첫 투자 라운드에서 70억 원을 유치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시드 라운드에는 토니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복수의 벤처캐피탈이 참여해 초기 단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 실적을 보유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크레센은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내 고객 확장과 신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실적 기반의 투자 유치는 드문 사례로, 이번 성과는 크레센의 기술력과 사업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회사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차세대 전기 수술기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아델 : 490억원 프리IPO



중추신경계 신약개발 기업 아델이 프리 IPO 단계에서 약 49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기존 투자사와 함께 삼성벤처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신규 기관이 참여했으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아델은 지난해 사노피와 알츠하이머병 항체 후보물질 'ADEL-Y01'을 10억 달러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한 바 있다. 이번 투자금은 ApoE4 항체 'ADEL-Y04', β 2-마이크로글로불린 항체 'ADEL-Y03' 등 후속 CNS 항체 프로그램의 비임상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오토파지 기반 표적 분해약물 플랫폼 'ADTACTM'과 혈뇌장벽 투과 항체 연구도 병행한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연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며 글로벌 CNS 바이오텍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임인텔리전스 : 100억원

AIM Intelligence

AI 보안 인프라 전문기업 에임인텔리전스가 시리즈A 라운드에서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생성형 AI의 환각, 편향,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취약점을 자동 진단하고 실시간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에임 레드', '에임 가드', '에이전트 판단 구조 감시' 등을 주요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강력한 기술 인력과 AI 시대를 대비한 보안·통제 인프라 구축 역량이 높게 평가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확보된 자금은 국내외 고객 확장과 제품 고도화에 활용될 예정이며, 빠른 시장 진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에임인텔리전스가 AI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톤28 : 90억원

TOUN28

친환경 인디 뷰티 브랜드 톤28이 IMM인베스트먼트로부터 약 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투자는 신주와 구주 매입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됐으며, IMM인베스트먼트가 톤28의 제품 경쟁력과 차별화된 원료 전략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톤28은 전남 해남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무농약 원료를 재배해 화장품을 생산해왔고, 지난해 매출 250억 원과 영업이익 30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왔다. 회사는 새 투자금을 활용해 아마존·틱톡 등 해외 판매 채널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IMM인베스트먼트가 과거 에이피알·구다이글로벌 등에서 높은 수익을 거둔 만큼, 업계에서는 톤28이 차세대 K뷰티 성장주로 부상할지 주목하고 있다.

샤페론 : 86억원



면역 신약 개발사 샤페론이 86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며 지난해 유상증자를 포함해 총 325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회사는 이번 조달 자금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의 임상 2b상 가속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타법인 인수에 투입할 계획이다. 발행 CB는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조건이며 리픽싱 조항을 제외해 기존 주주 희석 우려를 최소화했다. 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 것은 GPCR19 기반 염증복합체 조절 기술과 나노맵 플랫폼 등 회사의 핵심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샤페론은 확보한 자금을 통해 임상 개발과 기술이전 전략을 강화하고, 더마 코스메틱 등 비규제 영역 사업을 확대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장기적으로 외부 자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현금 흐름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트매스가 18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함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B200 GPU 서버 4기를 확보하며 AI 기반 교육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벤처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32개 GPU 자원을 확보한 데다가 장비를 활용한 모델 학습 능력 향상이 기대되면서 에듀테크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는 이번 성과를 향후 대규모 R&D 지원 사업인 스케일업 팁스 선정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번 투자에는 스케일업 팁스 추천 실적이 가장 우수한 동문파트너스가 참여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시장에서 검증됐다는 의미도 더했다. 포스트매스는 이미 팁스 프로그램을 우수 등급으로 졸업하고 120명 규모의 조직을 갖추며 성장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내년에는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벌 팁스 도전도 계획하고 있어, 국내에서 검증된 AI 수학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다.

주간 체크 포인트

1인 창조기업 50대가 주도...직장 경력 16년 이상=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16만 개를 기록했다. 평균 매출액은 2억 6,640만원, 당기순이익 3,620만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요 조사 내용> 2023년 기준 116만 2,529개로 집계되어 전년(100만 7,769개) 대비 15.4% 증가. 전자상거래업(27.9%), 제조업(21.2%), 교육 서비스업(17.1%) 순으로 상위 3개 업종이 66.2% 차지. 경기도(29.4%)와 서울(22.5%)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이 57.5%로 절반 이상을 점유.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 6,64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620만원으로 조사. 평균 연령은 55.1세이며 성별 비중은 남성이 70.7%, 여성이 29.3%. 개인사업체 비중이 85.8%로 법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사업 유형은 B2C가 78.0% 차지. 평균 업력은 13.1년, 창업 전 직장 평균 근무기간은 16.3년, 전직 업종과의 연관성(59.7점) 높아. 창업 이유는 더 높은 소득을 위해(40.0%), 적성과 능력 발휘(36.5%), 생계유지(14.5%) 순. 창업 준비에는 평균 13.1개월, 첫 매출 발생까지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까지는 평균 29.8개월 소요

2026년 4월 6-10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스탁키퍼	가축 투자 플랫폼	70억원	시리즈B	한국산업은행, 롯데벤처스, 인라이트벤처스, 제이커브인베스트먼트
피직스에이아이	로봇 시설 관리	비공개	시드	서울대기술지주
에듀싱크	실시간 화면 동기화 기반 에듀테크	비공개	시드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이노파마	의료기기	비공개	프리시리즈A	모비딕벤처스, 에이원에이씨, 파인드어스
프로티어바이오텍	분자접착제 개발 플랫폼	35억원	프리시리즈A	하나벤처스, 한국투자엑셀러레이터, IBK벤처투자, 미래과학기술지주, 티인베스트먼트
그리니시스템	순환경제 솔루션	100억원	기타(비공개)	시멜리아
위플로	AI 진단 솔루션	55억원	시리즈A	
브릴스	로봇 자동화 솔루션	70억원	기타(비공개)	포스코기술투자
피플앤드테크놀러지	AI 스마트병원 서비스 플랫폼	150억원	시리즈D	동아에스티, 원티드랩파트너스, 파인밸류자산운용, 보광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IBK캐피탈,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리비타	노지 스마트팜 솔루션	비공개	시드	지디벤처스
데일리쿠키	메신저 기반 지식 콘텐츠	비공개	시드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스트롱벤처스
에이브바이오랩스	건강기능식품	비공개	인수합병	에버마운트캐피탈매니지먼트
크레센	전기 수술기 개발	70억원	시드	토니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스틱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

아델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	490억원	프리IPO	스트먼트, 민트벤처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삼성벤처투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디에스자산운용,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샤페론	신약 개발	86억원	기타(비공개)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비증권
위트글로벌	스마트 관광 솔루션	비공개	시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톤28	친환경 인디 뷰티 브랜드	90억원	기타(비공개)	IMM인베스트먼트
에임인텔리전스	AI 보안 인프라	100억원	시리즈A	삼성벤처투자, 미래에셋캐피탈, 포레스트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포스트매스	수학비서 에듀테크	18억원	기타(비공개)	동문파트너스
프로밸리	AI 보안 딥테크	비공개	시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각스스쿨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